



바 닻바람이 한결 시원한 감을 더해주는 항도 부산-
경부선 중차역에서 내려 남쪽으로 5분남짓 걸어가면 부산시의 남북을 잇는 큰길인 중앙로 동쪽편으로 대한통운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주소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1-1. 이 빌딩 4층에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산지부가 자리잡고 있다.

기쁜 숨을 몰아쉬면서 문을 들어선 것이 오전 10시경. 대부분의 직원들은 안전점검과 보험계약을 위해 이미 자리를 비운후였다.

鄭圭龍지부장께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실 부산은 산업시설도 많은 편이지만 대형화재로 더욱 이름난 편이다. 이곳에 지부가 문을 연 것은 지난 73년 6월 19일로 만 11년이 넘었다.

지부가족은 모두 54명. 이들이 부산직할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총 4천9백54건의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업무와 보험계약업무를 다루고 있다.

특수 건물의 종류만 하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국유건물·학교·사설강습소·병원·호텔·공연장·백화점(옥내관

매장)·시장·아파트·공장·영화와 TV촬영소 및 방송시설장·요리점과 카바레등 유흥음식점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한 분야인 점검에 있어서는 부산시를 벗어나 경남지역 일대의 대형 산업시설에 대해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 산지부의 현재 조직은 업무과, 계약1과, 계약2과, 점검1과, 점검2과, 아파트과등 6개과로 나누어져 있다. 업무별 구성원은 건축·기계·전기·화공등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술직이 28명, 보험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과와 아파트과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의 업무량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계약 1·2과에서 다루어지는 특수건물은 일반건물, 공장물건등을 합해서 모두 4천2백8건으로 10명의 계약담당 직원중 실제로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8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담당처리 건수가 평균 5백29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아파트과도 마찬가지. 4명의 전담직원이 7백46건·총 7만4천6백46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약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지역을 누비고 다녀야 하는 계약담당직원들은 그래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부산지부의 활동영역은 이같은 본연의 업무외에도 그 폭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지부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통해서는 지난 한해동안 보험분야 15건, 점검분야 51건 등 모두 66건의 특수건물 소유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특건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유대관계를 더욱 다져나가고 있다.

새 마을운동과 인보사업에도 전직원이 매우 적극적이다. 한해동안에 20회에 걸친 거리질서지킴이 캠페인, 3회의 자연보호운동, 2회의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해운대지역에 있는 우정보육원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올들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협회에서 지난 76년부터 조직·운영해오고 있는 불조심 어린이단의 부산지역 조직학교인 남일국민학교의 재학생가운데 불우학생 2명을 뽑아 매 3개월마다 각각 2만원씩의 학자보조금을 지급해 오고있다.

부산지부에서는 이밖에도 지역 민방위교육에 15회 출강하는 한편 지역 방화협의회 회의시 또는 대형기업체의 종사원 교육에도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방재교육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방면에 걸친 이같은 대내외활동에 힘

입어 부산지부는 현재 보험업계의 정화추진 시범위원회로 지정되어 있어 직원들의 긍지도한 대단하다.

지난 5월2일에는 보험업계 정화추진요원 45명이 지부를 방문한바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지부에서는 정착된 협회 정화업무의 한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많 은 사상자를 낸 대야호텔 화재사건이후 부산시내 특수건물 소유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로 소화설비 개량자금과 소화기기 제조공장의 시설자금 대여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지부에서는 우선 개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리랑관광호텔에 4천7백만원, 피닉스호텔 1천9백만원, 태양관광호텔에 5백만원의 설비개량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우진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의 시설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

부산지부는 이처럼 부산·경남지역의 유일한 민간 방재전문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부장으로서 부터는 고충에 대한 얘기가 별로없다.

바로 이 점이 부산지부가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력일 것이다.



(정리 : 이두홍 홍보2과장)

